한국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한방외과
-동의보감 이전의 문헌을 중심으로-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철학과
3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역사학과 4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서지연[1] · 오준호[1] · 김태은[2] · 홍세영[3] · 윤성익[4] · 차웅석[1] · 김남일[1*16)]

A Study on Orthopraxia & Dermat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esented in Korean medicinal literature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1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Dept. of Oriental Medical philosoph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3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4College of History, kyungHee University
Jun-Ho Oh[1] · Ji-Yeun Seo[1] · Tae-Yuen Kim[2] · Sae-Young Hong[3] · Seng-Yick Yun[4] · Wung-Seok Cha[1] · Nam-Il Kim[1]

Orthopraxia & Dermat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s taken a large part of our medicine from the ancient times. However, stud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were mainly concerned with specific disease or treatment but studies on the history of orthopraxia & dermat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ve not been done largely. Subsequently, it is confirmed that diseases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orthopraxia & dermat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re carried with no less weight in the books other than literatures specialized in orthopraxia & dermatology while Korean medical literature is being researched with interests in the history of orthopraxia & dermat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paper mainly introduced and analyzed medical literatures containing diseases in orthopraxia & dermatology among Korean medical literatures which were classified into books on emergency measures, general medical documents and surgically specialized records prior to DongUiBoGam.

Kew Word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ngUiBoGam, orthopraxia & dermat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 서론

韓方外科는 오래 전부터 우리 의학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특정 질환이나 치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韓國外科學의 역사 및 그 학술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신저자 :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southkim@khu.ac.kr

이에 대한 연구 중 단행본으로는 김두종의 『韓國醫學史』[1]가 있는데, 한국의학사를 서술하는 중에 외과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채병윤이 『韓方外科』에서 韓國 外科學의 역사에 대해 정리했다.[2] 북한에서 나온『동의외과학』은 '동의외과학의 발전약사'라는 제목 하에 간략하게 우리나라 외과학의 역사를 밝히고 있고[3], 최근 발간된『韓醫學通史』[4]는 김두종의『韓國醫學史』처럼 외과학의 발달사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신좌섭 등이 조선시대의 治腫學에 대하여 6개의 治腫專門書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외과전문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5][6] 또한 김남일이 韓國韓醫學의 학술유파를 분류하면서 外科學派를 그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7]

알려진 한국의 한의학문헌 중 외과전문서는 그리 많지 않다. 『韓醫藥書攷』[8] 에서는 治腫專門醫書로 여섯 종류의 서적[9]을 꼽고 있으나, 그 중 『神仙太乙紫金丹方』은 紫金丹을 만드는 법과 그것의 치료효과에 대한 서적으로서 치종전문의서로 볼 수 없다. 앞서 말한 '신'의 논문[10]에서 다루고 있는 『白光炫知事公遺事 附 經驗方』, 『三十六腫圖錄』[11]을 더하여도 외과전문서적은 통틀어 총 일곱 권 뿐이고, 그나마 『治疱易驗, 治疱方』은 현전하지 않는다.

이에 韓方外科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의서들을 조사해 보던 중 외과 전문서 이외의 서적에도 한방외과의 범위에 속하는 질환들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실려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방외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한국 의서를 분류하고 목차위주로 소개하고 분석하여 이후 韓方外科의 발전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韓方外科의 개념

현재로서는 韓方外科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며, 한의계 내부에서도 韓方外科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피부외과, 한방피부과, 또는 치종학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한의과대학의 교재로 사용된 채병윤의『韓方外科』의 정의에 따라 '韓方外科'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채병윤은 『韓方外科』에서 '韓方外科란 皮膚表面에 나타난 腫瘍이나 內部장기 및 조직에 나타난 腫瘍一切를 말하는 것으로서 藥物療法이나 切開手術이나를 莫論하고 治療나 處置에는 관계가 없이 外科라 칭한다.'[12]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癰, 疽, 癤, 疔, 流注, 流痰, 丹毒, 瘰癧, 피부질환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서양의학의 외과는 '의학의 한 분과로 몸의 외부의 피부병·창상(創傷)이나 기타 내장기관의 여러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베푸는 것으로 뇌외과·흉부외과·내장외과·심장외과·항문외과 등으로 나뉜다[13].'(반대말 내과, '내장의 기관에 생긴 병을 외과적 수술을 아니하고 고치는 의술의 한 부문'[14])라고 정의된다.

---

1)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2) 蔡炳允. 漢方外科. 고문사. 1987. p. 8-12.
3) 손병권 외 2인. 동의외과학. 여강출판사. 1992.(북한판 발행처 평양의학출판사. 북한판 발행일 1967.)
4) 김기욱 외 11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5)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ㄱ.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1). 醫史學. 1997. 제11호. p. 205-215.
6) 신좌섭 외 3인.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ㄹ.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1998. 제12호. p. 75-96.
7)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波에 關한 試論. 한국의사학회지. 2004. 17(2). p. 21-22.
8)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 11-13.
9) 神仙太乙紫金丹方, 若山好古腫方撮要, 瘍醫微, 治疱易驗, 治疱方, 治腫秘方, 治腫指南
10)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ㄱ.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1). 醫史學. 1997. 제11호.
11)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치종전문서는 다음과 같다. 治腫秘方, 治腫指南, 白光炫知事公遺事 附 經驗方, 瘍醫微, 若山好古腫方撮要, 三十六腫圖錄
12) 蔡炳允. 漢方外科. 고문사. 1987. p. 1-2.
13)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7. p. 2775.

즉 한방외과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외부이거나 腫瘍류의 질환을 외과라고 지칭하는 반면, 서양의 외과는 치법에 초점을 맞추어 수술하는 치료법을 쓰는 의학분과를 외과라 지칭한다.

2. 이 논문에서 다룰 韓方外科 질환의 범위

과거에는 五官의 질환과 外傷 등도 外科의 범위에 포괄되었으나,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傷科, 안과, 이비인후과 등이 전문과로 분리되었다.[15]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서적에 따라 傷科,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도 한방외과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傷科,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은 다루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또한 피부미용질환과 疫病과 관련한 피부증상[16]도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다.

3. 연구방법

『韓醫藥書攷』[17]에 수록된 동의보감 이전 의서를 대상으로 『韓醫藥書攷』에 수록된 목차를 중심으로 외과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서적을 선별했다. 이후 해당의서를 『韓國醫學大系』[18] 등의 해당의서의 원본, 한국한의학 연구원의 지식정보웹서비스를 이용하여 목차를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외과질환을 다룬 의서들

외과질환을 다루고 있는 동의보감 이전의 현존 의서로는 구급의서류의 『鄕藥救急方』, 『救急簡易方諺解』, 『救急易解方』, 『救急良方』, 『諺解救急方』 일반의서류의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 외과전문서류의 『治腫秘方』, 『治腫指南』이 있다. 그 밖에 현존하지 않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서적 중 외과질환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서적으로 『疽瘡易解方』, 『治疱易驗』, 『治疱方』이 있다. 이를 발간연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의서제목	발간연도	
鄕藥救急方	13세기 전반	
鄕藥集成方	1431년	
醫方類聚	1477년	
救急簡易方諺解	1489년[19]	
救急易解方	1499년(초간)[20]	
疽瘡易解方		현재 전하지 않음
治腫秘方	1559년	
救急良方	1559년	
治腫指南		
諺解救急方	1607년	
治疱易驗		현재 전하지 않음
治疱方[21]		현재 전하지 않음
醫林撮要		
東醫寶鑑	1613년	

표 1 외과질환을 다룬 의서들-시대순

4-2 구급의서류

동의보감 이전에 발행된 구급의서는 총 일곱 권이 있다. 고려시대 처음 간행된 『鄕藥救急方』을 비롯

14)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7. p. 685.
15) 譚新華 외. 중의외과학. 인민위생출판사. 2003. p. 3.
16) 피부미용질환은 기미 주근깨, 여드름과 같은 질환을 말한다. 보통 역병에도 피부증상이 나타나므로(ex.홍역은 피부증상 동반) 역병관련 의서에도 외과질환에 대한 언급이 있다.
17)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8) 김신근 주편. 韓國醫學大系. 여강출판사. 1994.
19) 한국의학대계에는 1~3 권만 수록되어 있다. 4,5,8,9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 1515년(중종15) 을해활자(乙亥活字)로 중간(重刊), 1523년[가정계미곤양간본(嘉靖癸未昆陽刊本), 중종 18]에 목판으로 인쇄
21) 仁濟志와 東醫寶鑑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 이전에 발간된 서적으로 보인다.

하여 의방유취 편찬 전후로 하여 『救急方』, 『救急簡易方諺解』, 『救急易解方』, 『救急良方』, 『諺解救急方』이 꾸준히 편찬되었다.[22] 여기서 『救急方』을 제외한나머지의 『鄕藥救急方』, 『救急簡易方諺解』, 『救急易解方』, 『救急良方』, 『諺解救急方』은 모두 외과질환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먼저 『鄕藥救急方』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서(醫書)로서 몽고(蒙古)의 침입을 받아 고려의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편찬시기는 1232년에서 1251년 사이로 보고 있다[23]. 上中下 3권 중 외과질환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中卷인데, 중권의 반 이상이 모두 외과질환이다. 즉 丁瘡, 癰疽, 腸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癮癩方, 代指瘡, 瘭疽 附骨疽, 癬疥瘑瘡, 陰癩陰瘡이 그것이다. 전란 속에서 백성들이 전문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입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질병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론은 적고 단방과 향약위주의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24] 외과질환에 대한 의론의 내용이 비록 적으나, 이후 구급방에는 의론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구급방임에도 불구하고 의론의 양이 많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鄕藥救急方』 바로 다음에 나온 구급의서인 『救急方』은 『救急方諺解』라고도 부른다. 이 의서는 조선전기에 나온 구급의서 중 유일하게 외과질환을 수록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 책의 뒤를 잇는 『救急簡易方諺解』의 서문에는 '……전에 纂定한 의방유취는 이미 의학의 큰 업적을 모았다. 그 번잡한 것은 빼고 요점을 취한 것으로는 『鄕藥濟生方』과 『救急方』이 있었으나 취하고 버리는 것이 정미롭고 자세하지 못하였고 적당한 바를 잃었으니 다 지금에 적합하지 못하다'[25]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1479년(성종 10) 2월에 '병조참판(兵曹參判) 김순명(金順命)이 아뢰기를 일찍이 세조(世祖) 때에 『救急方』을 찬집(撰集)하였으나 그 약재가 중국에서 산출되는 것은 백성이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향약의방(鄕藥醫方)을 찬집하여 민간에 널리 펴기를 청한다.'라는 기록이 있다.[26] 즉, 『救急方』은 방대한 『醫方類聚』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추렸으나 그 내용이 당시의 의학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록한 약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救急方』의 목차를 살펴보면[27] 다루는 질환의 수가 다른 구급서에 비해 매우 적으며, 구급 질환 중에서도 보다 위급한 질환 위주로 선별되었던 것 같다. 이처럼 외과질환 및 중요한 질병을 빠뜨린 편제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던 까닭에 이후 시정하게 되었다.

『救急方』에서 제외되었던 외과질환은 1489년에 간행된 『救急簡易方諺解』에서 다시 보완되어 이후 구급의서 안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게 된다. 총 17가지의 질환만 다루고 있었던 『救急方』에 비해 『救急簡易方諺解』은 122개 질환을 다룰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이 중 외과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3권의 口瘡, 唇口緊, 面上生瘡, 腮腫, 丁瘡, 背腫, 走馬疳, 丹毒과 5권의 湯火傷, 杖瘡, 凍瘡, 漆瘡, 手足裂 으로 총 13개 항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질환에 대하여 『鄕藥救急方』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鄕藥救急方』에서는 주로 단방위주의 처방만을

22) 조선 중종(中宗) 때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의서로 알려진 村家救急方이 더 있으나, 이 서적을 직접 구해서 볼 수 없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까닭에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겠다.

23) 김기욱 외 11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p. 152.

24) 가장 앞에 나오는 丁瘡을 예를 들어보면, 정창은 13종이 있으며, 차가운 독기가 오랫동안 맺혀서 된 것이라 소개하고 증상과 예후, 금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후 정창의 치료법으로 쇳물(鐵液)을 마실 것, 蒼耳를 태운 재를 진한 식초에 개어 붙이는 것, 荊芥의 줄기와 잎을 달여 마시고 붙이는 것, 밀가루떡을 붙이는 것 외에도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법도 소개하고 있다.

25) (聖神相繼保養斯民無所不用其極留意醫術多)所纂定醫方類聚旣集醫家之大成其刪煩擧要者則先有口鄕藥濟生方口救急方而或取舍未精詳略失當皆不適於中今

26)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 108-109.

27) 中寒, 中暑, 中氣, 中忤中惡鬼氣, 鬼魅鬼打, 卒死, 卒心痛, 霍亂吐瀉, 尸厥, 纏喉風喉閉, 骨鯁, 脫陽陰縮, 吐血下血, 大小便不通, 溺水, 自縊

쓴 것과는 달리 병증 아래 제일 첫머리에 복합처방을 제시한 뒤, 이어 단방류의 처방을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8]

1499년에 인쇄하여 반포된 『救急易解方』의 서문에서는 '모든 방서 중에 보이는 가장 위급한 병과 약 가운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모아' 편성했다고 하며, 아울러 '그간 이미 편찬한 집성, 유취, 구급방과 같은 책들이 있지만 너무 분량이 방대하여 실용에 적절치 않거나 너무 간략하여 빠진 것이 많거나 아니면 오직 국내산 약재만을 고집하여 모자람이 있다. 모두가 이 책처럼 넓게 수집한 다음 요지만을 거두어 압축하되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29]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이 책은 『救急方』보다는 많고 『救急簡易方諺解』 보다는 적은 수인 85개 질환을 수록하고 있으며, 각 병증에 대한 설명이 구급간이방보다 훨씬 간략하고 짧아졌다. 또한 앞선 구급방들이 주로 단방위주의 치법을 수록하고 있었던 반면 복합처방위주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0] 또한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은 외과 관련질환을 나누는 목차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인데, 이전의 의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丁瘡이라는 항목은 사라진 대신 오히려 丁瘡과 같은 병인 듯한 丁腫을 癰疽의 뒤에 '癰疽 附丹毒丁腫'라고 붙여서 치법을 함께 논하고 있다. 앞서 『救急簡易方諺解』에서 丁瘡의 주요처방으로 제시했던 五香連翹湯과 千金漏蘆湯이 '癰疽 附丹毒丁腫'에도 가장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丁瘡'과 유사한 질환으로 보인다. 외과질환 부문에 있어서 목차의 전체적인 순서와 내용이 『醫方類聚』의 그것과 유사한데, 『醫方類聚』에서는 癰疽門, 丹毒門, 疔瘡門을 따로 나누어놓았는데 비해 이 책에서는 굳이 합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救急良方』은 앞서 언급한 구급의서류와는 계보를 달리 한다. 우선 책을 간행한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수록하고 있는 병증의 종류도 구급질환이라기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상견질환위주인 것으로 보인다.[31] 이는 이 책이 탄생한 배경과 관련이 깊은데, 이 책을 펴낸 안위는 발문에서 "좌상이 내의원 諸公들로 하여금 諸方을 강구하게 하여 선별하여 고른 것들이다. 내가 호남관찰사가 되어 질병을 얻으매 좋은 의사를 얻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 …… 본 방서는 지극히 간요하고 신효하여 감히 사사로이 비밀스럽게 감추지 못하겠기에 『治腫秘方』과 함께 간행한다[32]"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책은 굳이 구급을 위해 편찬되었다기 보다는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에서 여러 질병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처방을 선별할 것이다. 서적에 실린 외과 질환으로는 疔腫이 유일한데, 간략하게 세 가지 처방만을 수록하고 있다.[33]

『諺解救急方』은 허준이 선조로부터 명을 받고 編刊한것으로 東醫寶鑑의 집필 시작과 간행 사이에 저술과 간행이 이루어졌다.[34] 정순덕은 그의 연구에서 『諺解救急方』은 『東醫寶鑑』 중 救急에 대한 내용을 축출한 서적이 아니라 『東醫寶鑑』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독립서적이라 밝힌 바 있다.[35] 이

28) 향약구급방과의 비교를 위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구급간이방언해의 丁瘡에 대해 살펴보겠다. 구급간이방언해의 丁瘡에서는 증상이나 원인 등의 설명 없이 바로 처방이 나오는데, 복합처방인 화제방의 千金漏蘆湯과 五香連翹湯을 가장 앞머리에 제시하고 있다. 이후 蟬殼, 獨蒜, 生蜜 등의 단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향약구급방에 수록된 단방도 언급되고 있다. 말미에 '丁瘡不破', '拔丁諸丁不出', '丁毒入腹乃至氣絶', '赤根丁', '丁瘡根入腹', '丁腫至甚', '丁瘡發昏禁牙關不能開'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그에 대한 별도의 처치법을 서술하고 있다.

29) 안상우. 구급이해방. 고의서산책(162). 민족의학 162호.

30) 癰疽 附丹毒丁腫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香連翹湯, 千金漏蘆湯, 乳粉托裏散, 消毒犀角飮, 玉龍膏, 乳香黃芪散, 乳香拔毒散, 藍葉散, 十宣散, 太一膏의 처방을 제시하였고, 맨 뒤에서 단방으로 蒼耳의 재를 돼지기름에 바르라는 언급만 나와있을 뿐이다. 처방구성 약물과 용량은 없으며 처방이름과 주치, 복용법만 나와있다.

31) 구급양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傷風寒三日以前, 心腹脇痛之劑, 疝氣上衝之劑, 腰膝酸痛之劑, 喘嗽之劑, 腹脹之劑, 勞熱困倦之劑, 食滯不下之劑, 霍亂吐下之劑, 落傷之劑, 大便秘澁之劑, 小便不通之劑, 疔腫, 肉腫, 痢疾之劑, 中暑之劑

32) 한의학 지식정보 웹서비스. 구급양방 해제

33) 丁腫 - 外以針刺四畔令出惡血 蒼耳莖根鹽同煎浸洗後馬齒莧爛擣和鹽付之 千金漏蘆湯加靑皮生乾地黃忍冬

34) 정순덕. 허준의 언해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7.

35) 정순덕. 허준의 언해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외과질환에는 湯火傷, 癰疽, 大風瘡, 天疱瘡, 陰蝕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병명과 간단한 증상설명, 단방과 침구법 위주의 간단한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선 의서에서 큰 제목으로 다루어지던 丁瘡이 癰疽에 포함되어 옹저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의서제목 발간 연도	韓方外科 질환 해당 목차
鄕藥救急方 13C 전반	中卷 丁瘡, 癰疽, 腸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癮疹方, 代指瘡, 瘭疽 附骨疽, 癬疥癘瘡, 陰癩陰瘡
救急方 1466년	외과질환 없음 (총 17가지 질환, 보다 위급한 병증 위주.)
救急簡易方諺解 1489년	卷之三 口瘡, 唇口緊, 面上生瘡, 腮腫, 丁瘡, 背腫, 走馬疳, 丹毒, 卷之五 湯火傷, 杖瘡, 凍瘡, 漆瘡, 手足裂 (94개 질환 +부인질환(11) +소아질환(17)=122)
救急易解方 1499년[36]	癮疹, 疥癬, *癰疽* 附丹毒丁腫, 瘰癧, 凍傷, 癭瘤, 諸瘡, 湯火傷, 漆瘡, 乳癰 (85개 질환+本朝經驗)
救急良方 1559년	疔腫
諺解救急方 1607년	하권 湯火傷, *癰疽*, 大風瘡, 天疱瘡, 陰蝕瘡

표 2 구급의서류의 외과질환

4-3 일반의서류

동의보감 이전의 일반의서로는『鄕藥集成方』,『醫方類聚』,『醫林撮要』,『東醫寶鑑』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37]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책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한방외과 질환은 질환명이 매우 많으며 또 복잡하고, 서적에 따라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다. 따라서 종합의서류의 서적을 편찬할 때 편자가 이 복잡다단한 질환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고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위의 네 서적만 하더라도 외과질환을 모두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향약집성방부터 살펴보면, 癰疽瘡瘍門을 중심으로 외과질환을 수록하고 있고, 諸損傷門에서도 외과질환이라 볼 수 있는 凍瘡, 湯火瘡, 灸瘡腫痛, 灸瘡灸不差를 다루고 있다. 전체 85권 중 40권에서 49권에 이르기까지 외과관련을 수록하고 있으므로[38] 그 비중이 적지 않다. 그 중 癰疽瘡瘍門의 세부목차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처음 옹저에 대한 의론을 소개하고 이후 一切癰疽라고 하여 질환명에 癰이나 疽가 포함된 질환들을 나열하였으며, 그 후 一切毒腫 一切丹毒, 一切疥, 一切惡瘡이라는 항목 뒤에 그것과 비슷한 류의 질환들을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는 面黯등의 미용질환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잘 분류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목차가 복잡하다.

그 이후 간행된『醫方類聚』중 외과질환에 해당하는 門으로는 癮疹門, 疥癬門, 癰疽門, 疔瘡門, 丹毒門, 瘰癧門, 癭瘤門, 諸瘡門, 膏藥門, 湯火傷門이 있는데 의방유취 166권 중 24권분량에 해당한다.『鄕藥集成方』에서는 癰疽의 의미를 확대하여 보고 큰 제목을 癰疽瘡瘍門이라고 한 뒤 제 질환을 포함시켰던 것과는 달리『醫方類聚』에서는 癰疽를 다른 외과질환과 평행선상에 놓고 있다. 목차로만 본다면 癮疹, 疥癬, 癰疽, 疔瘡, 丹毒, 瘰癧, 癭瘤, 諸瘡, 湯火傷이 의방유취에서 외과질환을 분류했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醫林撮要』는 癰疽門이라는 제목아래 9권과 10

학위논문. 2004. p. 34.

36) 이후 1515년(중종 15) 을해활자(乙亥活字)로 중간(重刊), 1523년[가정계미곤양간본(嘉靖癸未昆陽刊本), 중종 18]에 목판으로 인쇄. -안상우. 구급이해방. 고의서산책(162). 민족의학 162호.

37) 향약집성방에 대한 연구로는 강연석.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의방유취에 대한 연구로는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의림촬요에 대한 연구로는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이 대표적이다.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로는 김남일.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의역사상. 한국의사학회지. 1999. 외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38) 47, 48, 49는 일부만 해당

권에 걸쳐서 외과질환을 수록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湯火傷과 杖瘡은 옹저문과 별개로 다루고 있고 옹저문 안에서 먼저 병증명에 癰이나 疽가 들어가는 병증을 다루었고, 이후 乳梗, 嫘巖, 便毒, 瘰癧, 結核, 瘿瘤, 疔腫, 囊癰, 丹毒, 癮疹, 惡瘡, 諸癬을 수록 한 뒤, 병명에 瘡이 들어가는 병증들을 나란히 배열하였다. 외과질환을 癰疽와 瘡으로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 사이에 乳梗, 嫘巖, 便毒, 瘰癧, 結核, 瘿瘤, 疔腫, 囊癰, 丹毒, 癮疹, 惡瘡, 諸癬 등의 질병들이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듯한 형태이다.

『東醫寶鑑』은 외과질환을 아예 癰疽와 諸瘡이라는 두개의 문에 나누어 귀속시키고 있다. 즉, 질환명에 癰이나 疽를 포함하고 있는 질병들을 모두 癰疽라는 제목 안에 묶어놓았고, 아울러 『醫方類聚』에서 疔瘡門을 癰疽門과 별개로 두어 다루었던 疔瘡을 疔疽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癰疽門안에 함께 다루고 있다. 앞서 허준이 편찬한 다른 의서인 『諺解救急方』에서도 앞선 의서에서 큰 제목으로 다루어지던 丁瘡이 癰疽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도 疔疽가 癰疽門안에 포함되어 함께 논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허준은 疔을 癰疽의 일종으로 보고, 癰疽치료의 大法의 맥락 안에서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 인식하였던 것 같다.

또한 허준은 의방유취에서 별도의 문을 설정하여 논하였던 瘰癧, 結核, 瘿瘤, 疳瘻, 疥癬을 모두 諸瘡門 에 귀속시켰으며, 凍瘡, 湯火瘡도 諸瘡의 범위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방유취에서 별도의 문을 설정하였던 丹毒과 癮疹은 외형편의 皮門에 귀속시켜 癰疽 諸瘡과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는 『醫林撮要』가 丹毒과 癮疹을 癰疽門 안에서 다른 외과질환과 병렬적으로 나열하였던 것과도 차별되는 점이다. 허준이 왜 이처럼 전과는 다른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아무튼 외과제반질환을 癰疽와 諸瘡으로 대분하여 질환을 보는 방식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간편하고 명료한 분류이며, 이는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은 이후 서적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39]

의서제목 발간 연도	韓方外科 질환 해당 목차
鄕藥集成方 1431년	**癰疽瘡瘍門**, 打撲傷損門, 諸損傷門, 蟲獸傷門 *세부목차는별도*
醫方類聚 1477년 간행	癮疹門, 疥癬門, **癰疽門**, 疔瘡門, 丹毒門, 瘰癧門, 瘿瘤門, 諸瘡門, 膏藥門, 湯火傷門
醫林撮要	제9권 傷損門 湯火傷, 杖瘡 **癰疽門** 取剩骨法, 附骨疽方, 臀癰方, 內疽方, 肺癰方, 心癰方, 肝癰方, 腎癰方, 胃脘癰方, 腸癰方, 乳梗方, 嫘巖方, 便毒方, 瘰癧方 제10권 結核方, 瘿瘤方, 疔腫方, 囊癰方, 丹毒方, 癮疹方, 惡瘡方, 諸癬方, 疳瘡, 天疱瘡, 膿瘡, 凍瘡, 頭瘡, 熱瘡, 頤頰瘡, 金絲瘡, 人面瘡, 漆瘡, 陰蝕瘡, 蝸瘡, 反花瘡, 月蝕瘡, 漏瘡, 癜風, 疥瘡, 腎臟風瘡, 癩風門
東醫寶鑑 1613	雜病篇 癰疽 上·下, 諸瘡 *세부목차는 별도*

표 3 일반의서류의 외과질환

40권 **癰疽瘡瘍門**, 辯疿疽證候好惡法, 辯癰疽宜灸不宜灸法, 辨癰疽宜鍼烙不宜鍼烙法, 癰論, 疽論, 一切癰疽, 石癰, 肺癰, 腸癰, 胃脘癰

41권 癰有膿, 熱毒癤, 癰疽淋洗, 緩疽, 瘭疽(幷附風疽石疽) 癌上高下深巖穴之義, 附骨疽, 發背, 發背貼熨, 發背寒熱, 發背潰後, 發腦, 甲疽,
42권 一切毒腫, 風腫, 毒腫入腹, 遊腫, 一切丹毒, 丹胗, 便毒, 丁瘡(魚臍丁瘡幷附)

43권 瘰癧, 諸瘡生惡肉, 惡核腫, 身體風毒瘡, 熱瘡, 冷瘡, 一切癬, 乾癬, 濕癬, 風癬, 久癬
44권 蝸瘡, 一切疥, 一切惡瘡, 無名瘡, 反花瘡, 浸淫瘡, 月蝕瘡, 膿[膿]瘡, 下注瘡, 代指

39) 예를 들어 동의보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濟衆新編, 醫門寶鑑, 附方便覽은 마찬가지로 癰疽와 諸瘡이라는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45권 漆瘡, 妬精瘡陰蝕瘡, 陰瘡, 陰下濕痒, 夏月痱瘡, 諸瘻
46권 癭瘤, 頭瘡白禿, 黑痣, 附恍目, 肉刺, 惡脈, 追蝕一切瘡腫, 諸瘡, 頭瘡, 面黯
47권 *面皯皰, 酒齇, 滅瘢痕, 面光澤潔白, 時毒疙瘩, 手足皹裂(미용질환류)*
48권 諸損傷門 凍瘡, 湯火瘡 49권 灸瘡腫痛, 灸瘡灸不差,

표 4 향약집성방의 외과질환 세부목차

皮	丹毒, 癮疹
癰疽 上	癰疽發病之原, 癰疽欲發之候, 癰疽名狀, 癰疽腫痛痒之因, 癰疽輕重淺深之辨, 定癰疽死之部分, 癰疽當分內外, 癰疽當分經絡, 癰疽脈, 癰疽難治不治證, 癰疽辨膿有無及淺深, 癰疽發暈, 癰疽死證, 癰疽善惡證, 治癰疽大法, 癰疽內托法, 陰疽起發法, 癰疽五發證, 癰疽作穴出膿法, 癰疽排膿生肌法, 癰疽去惡肉方, 癰疽湯洗法, 癰疽糝貼法, 內外分癰疽, 肺癰, 心癰, 肝癰, 腎癰, 胃脘癰
癰疽 下	腸癰腹癰, 脈法, 臂癰, 臀癰, 懸癰, 便癰, 囊癰, 附骨疽 (緩疽石疽賊風辨, 始發預防法), 流注骨疽, 疔疽 (疔疽形證, 疔疽治法, 紅絲疔, 魚臍疔, 脫疽疔, 疔疽死證, 發疔法, 食疫死牛馬禽獸肉生疔), 癰疽雜證(癰疽煩渴, 癰疽嘔逆, 癰疽痰盛, 癰疽寒熱, 癰疽作痛, 癰疽泄瀉), 癰疽通治藥, 癰疽鍼法, 癰疽烙法, 癰疽灸法, 調理及禁忌法, 單方
諸瘡	大風瘡, 白癩瘡, 天疱瘡, 鵝掌癬, 瘰癧, 結核, 癭瘤, 疳瘻, 疥癬, 癩頭瘡, 人面瘡, 陰蝕瘡, 臁瘡, 腎臟風瘡, 浸淫瘡, 凍瘡, 湯火瘡,
	翻花瘡, 漆瘡, 軟癌, 有名無名諸惡瘡, 葡萄瘡, 天行斑瘡, 月蝕瘡, 內疳瘡, 瘑瘡, 走皮赶瘡, 蛇纏瘡, 魚目瘡, 熱毒瘡, 火斑瘡, 諸般惡瘡

표 5-동의보감의 외과질환 세부목차

4-4 외과전문서류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의서 중 외과 전문서는 몇 권 되지 않는다. 이 중 동의보감 이전에 나온 현존하는 외과서로는『治腫秘方』[40],『治腫指南』이 있다.『治腫秘方』은 1559년 금산에서 救急良方과 합본으로 발간되었는데, 안위가 서문에서 임언국[41]의 遺方을 얻어 금산군수 이억상에게 시켜 간행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언국은『치종비방(治腫秘方)』에서 기존의 13丁, 16丁 등 복잡했던 丁에 대한 분류를 자신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5丁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외과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의학 외과사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업적이다. 5丁 대한 치법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鹽湯沈引法및 土卵膏, 척택혈에 자침하는 것, 심할 때는 천금누로탕에 蟾灰를 타서 복용하는 것과 鹽湯沐浴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또한 背腫에서는 ×자 형태로 종기를 절개하여 惡血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인 외과술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독창적인 치법으로 평가되고 있다.[42]

이는『治腫指南』에도 이어진다.[43] 김두종의 책[44]

40) 임언국. 치종비방. 한국의학대계 28. 여강. 1994. p. 217-235.

41) 서문에 의하면 임언국은 전라도 정읍군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靈隱寺 老僧에게 鍼術의 묘법을 전수받아 그의 모친의 병을 治하고 그 후 스스로 그 妙理를 얻어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治腫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조정이 이를 듣고 驛馬로 서울로 불러, 數世 동안에 치료받은 자가 수만에 달하였다. 왕으로부터 의복의 賞賜가 있었고 禮賓寺 上簿에 임명되었는데 임금의 은총이 대단할 때 애석하게 卒하였다.

42) 신좌섭 외 3인,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1998. 제12호.

43) 治腫指南 원본은 국내에 남아 있지 않고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것을 江戶幕府의 고증의학자 丹波元簡이 필사한 사본

에 실려있는 『治腫指南』 원문이미지의 내용은 확인 결과 『治腫秘方』과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신좌섭도 '임언국의 기술을 이어받은 유파중의 식자가 …… 임언국 의술의 영역을 한껏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45] 신좌섭에 의하면 '침으로 치료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각종 질환에 관한 외과적 치료법을 설명하고'있는데, '구체적인 실험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목차를 보면 『治腫秘方』보다 훨씬 다양한 질환을 더욱 풍부한 치법을 바탕으로 다루고 있다.

의서제목 발간 연도	목차
治腫秘方 1559년	治腫祕方, 火丁, 鹽湯沈引法, 土卵, 千金漏蘆湯, 蟾灰, 鹽湯沐浴法, 石丁, 水丁, 麻丁, 縷丁, 背腫
治腫指南	卷一 背腫圖, 已膿腫形圖鍼破法, 長腫形圖鍼破法, 腫中陷裏形圖, 圓腫形鍼破圖, 內腫圖, 陰腫圖, 項髮際腫圖 등 30餘圖 卷二 背腫, 內腫, 陰腫, 項腫, 鼓脹, 浮腫 등의 證治 95種 治法綱要九, 用藥法十七[46]

표 6-외과전문의서류와 목차

Ⅲ 결론

1. 외과질환을 다루고 있는 동의보감 이전의 현존 의서로는 구급의서류의 『鄕藥救急方』, 『救急方』, 『救急簡易方諺解』, 『救急易解方』, 『救急良方』, 『諺解救急方』 일반의서류의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 외과전문서류의 『治腫秘方』, 『治腫指南』이 있다.

2. 구급의서류 여섯 권 중 『救急方』을 제외한 의서들은 모두 다 외과질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의론은 없이 단방위주의 간단한 처방과 손쉬운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급의서류 안의 외과질환명은 의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대로 갈수록 丁瘡의 의미는 축소되고 癰疽의 의미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鄕藥救急方』에서는 丁瘡과 癰疽가 별개의 질병으로 다루어지다가 허준의 『諺解救急方』에 이르러서는 癰疽 안에 疔瘡이 포함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3. 동의보감 이전의 모든 일반의서류 서적은 외과질환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鄕藥集成方』은 처음으로 옹저에 관련된 체계적인 의론을 싣고 있으며,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으로 내려오면서 복잡다단한 외과질환이 癰疽, 諸瘡로 대분되어 정리된다.

4. 외과전문서인 『治腫秘方』에서는 기존의 13丁을 5丁으로 새롭게 분류하였으며, 종기에 대한 독창적인 치료법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治腫指南』에 이어진다.

5. 앞으로 한국 한의학에서 韓方外科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외과전문서 뿐 아니라 위에 제시한 여타 의서류도 그 연구대상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rain Korea 21 project in 2006
이 논문은 2006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Ⅳ 참고문헌

<논문>
1. 강연석.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이 일본의 京都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책을 구해볼 수가 없기에 일본에서 직접 영인해와서 연구한 김두종의 상게서, 김신근의 상게서 위의 신좌섭 외의 논문을 2차적으로 참고하였다.

44)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p. 272-253.

45) 신좌섭 외 3인.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1998. 제12호. p. 79-80.

46)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p. 272-273. (위의 '신'의 논문에는 전체 목차가 실려있다)

2.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波에 關한 試論. 한국의사학회지. 2004. 17(2)
3. 정순덕. 허준의 언해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5.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6.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2). 醫史學. 1998. 제12호.
7. 신좌섭, 기창덕, 황상익. 조선시대 치종학에 관하여-그 발전배경과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1). 醫史學 . 1997. 제11호.

<단행본>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신영일, 안상우.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2. 허준. 신편대역 동의보감 . 법인문화사 . 2005.
3. 譚新華 외. 중의외과학. 인민위생출판사. 2003
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 새천년 향약집성방. 도서출판 정담. 2000.
5.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 11-13.
6.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7.
7. 김신근 주편. 韓國醫學大系1, 2 ,28. 여강출판사. 1994.
8. 蔡炳允. 韓方外科學. 여강. 1993
9. 손병권, 전홍룡, 윤규범 공저. 동의외과학. 여강출판사. 1992.(북한판 발행처 평양의학출판사. 북한판 발행일 1967.)
10.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기타매체>

1. 한의학 지식정보 웹서비스
- http://jisik.kiom.re.kr/
2. 안상우. 구급이해방. 고의서산책(162). 민족의학 162호.